드보라, 하나님 열정 위한 분화구

(사사기 5:1~31)

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3.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드보라, 하나님 열정 위한 분화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드보라, 하나님 열정 위한 분화구’

우리가 지구의 구조를 대강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부가 핵인데 온도가 무려 2,200~5,000도까지 이르는 굉장히 뜨거운 부분입니다. 이 핵 다음 맨틀 부분은 870~2,200도 가량 됩니다. 그리고 맨틀 윗부분이 지각 부분으로 가장 깊은 해양의 지각으로부터 맨틀까지는 8km정도 된다고 하고, 육지에서는 지각의 두께가 40km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속이 무척 뜨겁습니다. 속이 이렇게 뜨겁다보니 맨틀과 지각 사이로 마그마가 흐르게 됩니다. 마그마는 불덩어리로 물처럼 흐르는데 휘발성인 가스가 압력이 생기다보니 자꾸만 위로 올라갑니다. 이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지나가게 될 때에 위로 구멍을 뚫으며 솟구쳐서 분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백두산 천지나 한라산 백록담 같은 분화구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분화구를 만들어 내는 구조와 과정을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지구의 지질학적인 측면 대신에 인간 세상이 지각을 이루고 있고, 그 지각 끝에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공간이 맨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이 핵을 이루게 되는데 영적인 세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구조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표면에 비유되어지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각이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조밀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분화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는 마그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열정에 쌓여있기 때문에 분출되기 위한 분화구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분화구를 통해 분출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 세상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도 결정과 뜻과 생각도 전부 인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의 분출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격적 존재가 필요하고, 인격체인 인간만이 하나님의 인격적 요소의 분출구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선민은 이러한 인간 세상이라는 지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열정의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도록 부름 받은 분화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민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의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선민들의 마음의 지각이 굉장히 얇아야 합니다. 두터운 부분으로는 마그마가 뚫고 나오지 못하므로 우리 마음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 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 얇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경계와 영적인 맨틀이 시작이 되는데, 인간 세상의 경계에 서있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인간 세상 쪽으로 자꾸 주면 그 마음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앞장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묘사할 때에 '비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사 에훗이 한 규빗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 모압 왕 에글론이 상징하는 것은 '마음을 이 세상에 계속 지불해서 비둔해지고 두꺼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으로는 인간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을 담고 있는 사랑의 열정이 분출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3:2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인간 세상에 있는 대상과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꺼워지고, 이렇게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사랑의 열정은 분출될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기준점으로 볼 때에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지불되면 그만큼 두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므로 세상에 대해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사장님이 뭐라고 해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죽었는데 마음 쓸 수가 있겠느냐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에 대한 마음의 지표를 가능한 비닐처럼 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내 인격체를 통해서, 즉 내 마음이 분화구가 되어서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관심도 아이디어도 다 죽었지만 그렇게 얇아진 나의 인격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분출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생각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창조성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분출되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승전가이고 개선가인데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내용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잘 살펴보면서 드보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출구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새 '디바(Diva)'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본래 이탈리아어로 '여신'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본뜻을 넘어서 오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소프라노 가수나, 대중가요계에서도 최고의 여자 가수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가 원조 디바입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지구상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거기에서 용암이 분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한 지각을 형성하는 조그만 한 장소가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뚫고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낯설게 하기를 통해 우리의 일로 붙잡아 보자는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실제 분출구가 되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첫 부분을 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멈칫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을 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을 했고 찬송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사이에 괄호가 있다면 찬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을 했으니 그들이 찬송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는데 왜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셔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생각하는 선민과 하나님의 결합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당신의 역사를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들은 분출구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분출구를 통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에너지이고 나와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선민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분출구로서의 삶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도 멈칫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왕의 형제 중의 누군가를 찬송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역모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는 그들 이외의 다른 대상을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왕들을 부르고 통치자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한 왕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왕들의 귀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데 세상을 향한 역모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분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두렵고 존경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떻게 왕들을 마음에서 아래에 둘 수 있었을까요? 교만해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왕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위치에서 보니 왕들도 자기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에게 가졌던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왕들을 깔보려고 해서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4~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라고 합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는 것은 광야 시절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왕도 250만 명이나 되는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책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책임지신 하나님을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는 지금 자기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드보라의 마음 상태는 인간 세상에 대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과거의 역사속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왕 같은 존재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닌다면 사장님이 왕입니다. 삼성에 속한 간부가 삼성그룹의 회장님 앞에서 LG그룹의 회장님을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간부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십자가 붙잡고 자기 회장님에 대해서 죽어서, 성경에서 증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장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회장님을 보면 회장님은 더 이상 내게 왕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회장님 앞에 있는 이유는 회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분출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먼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지각이 두꺼워집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진행이 되며 수미상관(首尾相關)을 이루고 있는데 머리와 꼬리가 의미상으로 똑같거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백 대의 철 병거를 거느린 절대강자였던 군대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야엘에 대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과정을 노래하는데 25절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라고 합니다. 귀한 나그네가 왔을 때에 가장 귀한 그릇에 가장 귀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해야 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가정의 가정주부가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야엘이 평소에 하던 가정주부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절대강자인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에 대해 노래하기를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라고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이 언제 올지 염려하는데, 시녀들이 시스라가 적군을 물리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시스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절대강자였습니다. 선민들이 시스라의 구백 대의 철 병거에 눌려서 완전히 침체국면에 들어섰던 것인데, 그 시스라를 한 여인이 일상적인 가정 일을 하는 행동을 하는 중에 죽였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 말과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구백 대의 철 병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절대 강자, 사람들이 벌벌 떠는 절대 강자 ‘도대체 저 회사가 망하겠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저 사람처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요새 구글의 래리 페이지, 알리바바의 마윈,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같은 막강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왕처럼 여기는 생각을 가진 것이 이미 마음이 지불되어 두터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당시 최강자였던 군대장관 시스라조차도, 가정주부가 가정의 일을 하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자라면 이 세상에서의 절대강자에 대해서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두꺼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출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깰지어다.’라

는 말은 우리 마음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취해서 살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일이 잘되면 기뻐하느라 그 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취해 있는 선민을 깨워야 하는 자신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이 왕들 위에 올라가게 되고 시스라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세상에 취해서 왕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취한 것이고 잠든 것이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는 왕들이 반드시 아래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깔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주님 따라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아래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은 '이 지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의 상징이고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상징이 산꼭대기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산조차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드보라의 마음이 이 인간 세상에 대해 얼마나 얇아져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드보라의 마음 상태가 바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의 분출구가 되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 내 가정과 육체까지 포함한 인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을 지불하는 양을 줄이고 줄이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얇은 지각이 되어서 하나님 열정의 분화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드보라의 마음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열정의 분화구로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통해 분출되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